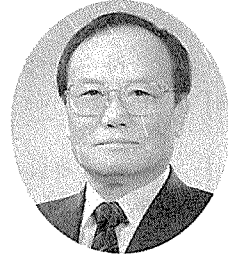


「國際競爭力 強化」를 위한 科學技術政策方向과 企業人の 役割



金 始 中

科學技術處長官

— 産技協, 金始中 科學技術處長官 招請 懇談會 —

I. 序 言

본인은 오늘 우리나라 産業技術界의 구심체인 韓國産業技術振興協會의 회원 여러분과 産業技術研究組合 이사장, 政府出捐研究所長 여러분을 모시고 올해 國政目標인 『國家競爭力 強化』를 위한 科學技術政策方向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韓國産業技術振興協會 강신호 회장님을 비롯한 會長團과 이른 아침시간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企業人, 科學技術人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韓國産業技術振興協會가 지난 1979년에 설립된 이래 政府와 企業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심으로써 科學技術政策, 그리고 産業技術發展등에 크게 기여하신 그간의 업적과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그간 協會의 任職員과 會員社의 각별한 노력의 결과로 '93년중에 255개의 기업부

설연구소가 증가하였고 지난 1월20일자를 기해 1,700개소를 돌파함으로써 기업의 技術開發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은 국민 모두에게 希望과 自矜心을 갖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획기적인 技術力 提高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합니다.

본인은 오늘 이와같은 귀중한 시간을 통하여 급속하게 再編되고 있는 國際秩序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하여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國家競爭力 強化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방향, 그리고 文化政府의 민간주도 경제정책기조 아래에서 우리 기업인과 과학기술인이 가져야 할 노력 등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II. 『國家競爭力 強化』와 科學技術

이자리에 함께 하신 기업인 그리고 과학기술인 여러분!

올해는 變化와 改革의 2차년도로서 문민 정부 출범과 함께 펼쳐진 여러가지의 改革政策들이 經濟·社會 곳곳에서 서서히 열매

를 맺고 있으며, 自律과 創意를 추구하는 科學技術政策의 实效性을 더욱 제고시켜 技術先進國의 跳躍臺를 構築하기 위하여 邁進하는 뜻깊은 한해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최근의 國際環境은 國경없는 地球村 경제를 실현시킬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 타결되고 머지않아 닥칠, 環境保護와 무역규제를 연결시키는 『그린 라운드(Green Round)』협상이 예측됨에 따라, 세계 각국으로부터 다가서는 도전에 대응하여 國운을 걸고 경쟁력확보에 總體的 國家力量을 結集시켜 나아가야겠습니다.

競爭力확보의 가장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은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여 질 좋고 값싼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最上의 方案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경제는 과거 30여년 동안 政府主導하에 國民들의 開發意慾을 고취하고 資本과 기술이전이 용이한 國際經濟環境을 잘 이용함으로써 高度成長을 이룩해 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우리 경제는 경쟁력의 약화와 함께 成長活力이 크게 떨어지고 위축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主된 要因은

- 정치 민주화에 상응하는 彈力的인 경제운용체제가 구축되지 못한 점과
- 저 임금과 외국기술에 의존한 생산활동의 틀이 급격한 高質金화와 선진국들의 技術保護注意 강화 정책에 부딪혀 그 추진력이 약화된 점,
- 그리고 과거 정부 주도하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각종 규제가 기업의 생산활동 阻害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根本的인 要因은 脫冷戰 이후 경제전쟁, 과학기술전쟁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能力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때문이라는 점을 깊이 새기고 反省해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產業競爭力의 基本腰體 源泉이라고 할수 있는 과학기술력을 충분

하게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앞으로의 과제는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확정된 『技術開發戰略』에 따라 과학기술을 G7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自律과 創意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인·과학기술인도 새로운 각오와 變身의 노력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核心主體인 企業인과 科學技術界가 일치단결하여 국제사회에서 當당한 위치를 확보해 갈 때 國民에게 希望을 주고 國民들로부터 信賴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들의 합리적인 주장이 國家나 社會 各層에서 수용될 것으로 確信합니다.

III. 國際環境의 變化와 우리의 대응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7년간 끌어온 UR협상이 타결되어 이른바 『無限競爭』의 시대에 들어 섰으며, 또다시 새로운 제약을 가하게 될 GR과 TR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같은 국제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認識의 大戰換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東西冷戰시대의 二大軸이 무너지고 화해와 협력을 표방하면서 세계주도권 장악의 수단은 종래의 軍事力 위주에서 經濟力 위주로, 그리고 根源的으로는 科學技術力 爲主로 轉換되어 가고 있습니다.

物質流通에는 울타리를 없애고 완전자유와 개방을 내세우면서도, 知的財產權 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核心尖端技術을 둘러싼 기술개발경쟁은 단순한 기업차원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간의 경쟁으로 그 양상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선진국들은 자국이 보유한 첨단 과학 기술의 해외이전을 기피하면서 경쟁대상 국가의 과학기술 관한 情報蒐集을 위해 과거의 군사정보 수집기능을 產業技術情報 획득기능으로 전환하고, 외교력을 경제에 집중시키면서 유럽통합과 北美經濟協力體구성과 병행하여 技術共同體나 동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술개발에 대한 政府支授이 국가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歪曲시킨다는 이유로 이를 규정해야되고 정부의 民間技術支援制度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통일시켜 나가야 한다는 '91년의 OECD政策宣言을 시작으로 『新國際技術規範(New Rules of the Game)』이 싹트고 있습니다.

OECD정책선언의 주요내용은 이미 妥結된 UR協定文案에도 반영되어 研究開發補助金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地球環境 保護를 명분으로 한 각종 규제의 강화 등은 우리에게 새로운 대응전략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단한 혁신만이 기업과 국가가 선택할 최선의 대안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中國이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면서 풍부한 自然資源과 低賃金을 바탕으로 한 저가상품의 공세로 우리 産業중 설자리를 빼앗긴 업종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基礎科學이나 軍事技術이 産業技術化 되었을 때 더욱 위협적인 경쟁상대가 될 것이므로 우리 산업계는 한차원 높은 기술 확보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같이 선진국은 규제를 강화하고 후발국의 추격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앞으로의 戰略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質의 힘』 즉, 과학기술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길 뿐일 것입니다.

IV. 새政府의 科學技術政策 方向

다음은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국제교역 질서속에서 文民政府가 추구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科學技術政策 基조는 지난해에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신경제 5개년 계획중 技術開發戰略部門計劃에 반영하고 있으며, 문민정부의 기본이념에 따라 民間의 自律과 創意

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의 개혁과 투자재원의 확대 및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체계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脫冷戰 이후 深化되고 있는 선진국의 技術霸權主意에 대응하여 현재 세계15위 수준으로 평가되고있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98년까지는 세계9위로, 21세기 초까지는 7大先進國 수준으로 도약시킨다는 기본목표 아래 계획기간중 국가 연구개발의 國際化·專門化 一流化를 위해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발전을 더욱 가속화하여 總體的 國家競爭力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에따른 중점추진 시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 民間主導의 技術革新體制를 확립해 나가는 일입니다.

우선 민간연구개발조직을 활성화시켜 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이 조기에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中小企業附設研究所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병역특례업체 선정요건을 완화하였으며, '92년 1월부터 새로운 업종으로 도입된 연구개발업에 대하여도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조세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업간 협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이 아닌 기업간 공동연구소 설립등 다양한 연구조직 설립을 장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科學技術情報의 수집 및 유통체제를 강화하여 민간기업 등에 대한 과학기술 정보 서비스 기능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함께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여 研究人力의 확대 및 精銳化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석·박사의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우수이공계대학을 大學院 中心體制로 육성하고, 유능한 海外 高級科學技術人을 대거 초빙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學·研·産 協同 석·박사 과정』을 내실있게 확대운영 하며, 박사후연수제도를 海外尖端技術研究 위주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租稅優待는 成長潛

在力을 確大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기술금융면에서는 과학기술진흥기금과 한국종합금융(주)의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技術性 위주의 대출심사제도를 정착시켜 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行政規制를 과감히 완화하고 관련 절차를 簡素化해 나가며, 해외연구소 설립절차, 병역특례연구요원 해외여행절차, 研究開發用品 관세감면절차 등을 간소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대전 EXPO시설을 國民科學技術教育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방과학교육원의 육성을 통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을 확산시키며, 韓國工學賞을 신설하는 등 과학기술관련 포상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需要指向의 技術開發體制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 합니다.

短期的인 기술수요 조사와 中長期 기술에 촉사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는 研究企劃 段階에서부터 시장수요에 입각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目標管理制를 도입하는 등 연구기획·평가·관리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 주도의 產·學·研 協同研究體制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기업과 대학 우수연구센터(SRC/ERC)간의 산·학 연구개발콘소시움 형성을 적극 장려하고, 기업이 특정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해 學·研間 연구개발콘소시움을 형성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산·학·연간 인력교류의 활성화 등 협동연구촉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해에 協同研究開發促進法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개발기술의 實用化 및 新技術製品的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支援制度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연구개발실용화사업단을 통하여 출연연구기관 保有技術

을 기업에 無償讓許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신기술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대학과 국공립연구소 보유 기술까지 무상양허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 제품의 市場 進出을 지원하기 위하여 綜合落札制 지정품목을 확대하고 국산 신기술제품의 우선구매제도를 보완하며 『IR 52장영실상』의 시상 및 『국산신기술인정마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戰略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우선 연구개발투자를 98년까지 국민총생산의 3~4%로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94년도 정부의 과학기술예산을 '93년도 1조4천8백억원에서 4천8백억원을 늘려 1조9천6백억원으로 32.7%증가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科學技術關係 예산 증가율이 16.6%이고 국가 전체의 '94년도 豫算增加率이 19.9%인 점을 감안할때 획기적인 증가로 이는 新經濟 建設을 위한 科學技術投資擴大 의지의 확고한 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연구 개발비를 증가시켜 產·學·研 協同으로 民需·軍需겸용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정부투자기관의 매출액 대비 개발투자비중을 98년까지 4%로 확대하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함께 한정된 研究開發投資財源의 효율적 배분·활용을 위해 綜合科學技術審議會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실질적 綜合調整機能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첨단기술개발사업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광대역 중합정보통신망 등 현재 추진중인 11개 핵심신도 기술개발사업 (G7프로젝트)을 계획대로 일관성있게 추진하되, 연도별성과 관리제를 도입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21세기 첨단산업을 주도해 나갈 次대용통역기, 휴먼로봇 등 미래복합기술도 적극 개발해 나가고, 航空 宇宙·原子力등 거대과학기술도 중·장기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산업기술의 高度化를 지원하기 위하여 中間核心技術開發事業(Medium Technology)을 산·학·연 협동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환경 등 公共福祉技術에 대하여는 主務部處 中心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하되, 綜合科學技術審議會를 통하여 투자우선 순위 및 배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고속전철 등 대형공공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일정율을 관련기술개발에 투자토록 권고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5개년 계획 외에, 올해에는 2010년 까지의 科學技術 成長發展計劃을 수립하여 21세기 과학한국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5대중점추진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과학기술처의 5대 중점시책은

- 尖端·源泉技術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 基礎科學 육성과 高級 科學技術人力을 양성하며,
-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한 研究開發事業의 지원을 확대하고,
- 民間企業의 技術開發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며,
- 原子力 기술자립과 安全監視活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첫째, 尖端·源泉技術의 전략적인 개발추진 내용은,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의 지속적 추진으로서 특정제품 또는 기술분야에서 선진국수준의 기술확보를 위하여 '92년부터 2001년까지 총3조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汎部處的으로 11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93년에는 2,646억원을 투입하여 고선명 TV·퀴놀론계 抗生劑 등을 개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고, 금년에는 총3,224억원을 투입하여 신소재·정밀화학분야 등에 438개 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목표관리를 강화하여 연구의 效率性を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生命工學技術 개발사업은 1차 년도인 금년을 「생명공학 도약의 해」로 정하여 政府·民間총2,210억원을 투입, 신기능 생물소재 기술개발 등 10개 과제의 연구를 수행하

겠습니다.

情報化社會의 核心技術인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자립을 위하여 '94년에는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한글情報處理技術과 소프트웨어 생산공학기술 등을 집중 개발하되 國際共同研究를 통하여 국제시장 진출 기반 조성도 다져 나갈 것입니다.

둘째, 基礎科學을 육성하고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優秀教授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구비를 확대하고, 국가 총연구비 중 대학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93년 7.6%에서 '98년 12%로 제고시켜 나가며, 현재 建設中인 제3세대 放射光加速裝置와 대덕연구단지에 플라즈마 연구장비 등 대형연구시설을 금년 12월까지 완성하고, 또한 고가 첨단연구기자재도 보강하여 연구소·기업·대학에서 더욱 많이 활용하도록 지원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國際水準級 高級科學技術人力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급인력의 國策的 海外養成制度」를 신설하여 미래의 우수 과학기술지도자 그룹을 형성케하는 등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급첨단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을 國際化에 대응한 世界一流의 教育研究機關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산·학·연 공동연구에 대하여는 연구비·시설·정보를 우선 지원하고, '93년에 처음 실시한 『工大教授 산업현장 실습제도』를 '93년 80개 팀에서 금년에는 150개 팀으로 확대하여 이론과 현장기술을 접목시키며, 산·학·연 전문가들의 「협동연구회」도 '93년 100개 팀에서 금년에 300개 팀으로 확대하여 相互情報交流를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종자개량, 재배, 가공·저장, 수입농산물검사, 부산물이용의 5대尖端農業技術을 '94년에 100억원, '97년까지는 577억원을 투자하여 집중 개발하고, 정보통신분야 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 하기위하여 「廣大域 綜合情

報通信網」개발사업과 256개가 디램급의 반도체소자 개발을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 핵심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京畿道 발안공단내에 知識産業研究團地造成을 민간주도로 추진하여 '97년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은 기업에대한 技術開發補助金 지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지원 등 기업기술개발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彈力的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民間企業의 기술개발 활성화대책으로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강하여 企業附設研究所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93년에 제정된 「국산신기술 인정마크」제도를 발전시켜 우수 신기술의 기업화를 촉진하며, 「中小企業技術 隘路事項點檢對策班」을 구성·운영하여 기술·인력·자금 등 애로문제를 파악, 제도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主力産業중 국제경쟁력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10개 전략분야의 中間核心技術을 '97년까지 3,250억원을 투자하여 중점 개발해 나가되, 우선 금년에는 製品·素材·工程革新에 관련된 연구개발에 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고속철도 기술자립을 위하여는, 고속철도 관련 核心技術의 효율적 이전을 통해 후속 기술의 독자적 개발능력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기계(연)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단』을 운영, 기업이 효과적으로 기술을 이전받고 자체 소화·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원자력 기술자립과 안전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原子力 先進國으로의 진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次世代原子爐, 동위원소 이용 등 10개 부문의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汎國家的으로 추진하되, '94년에는 511억원의 연

구비를 투입, 『미래형 고연소 핵연료개발』 등 20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原子力統制센터」를 신설하여, 국제 원자력기구 사찰과는 별도로 自體查察도 수행함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국내외에 제고하며, 주변국의 핵사고 및 방사성폐기물 海洋投棄에 대한 환경방사능 감시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V. 「國家競爭力強化」를 위한 企業人의 役割

이자리에 함께하신 韓國産業技術振興協會 會員, 産業技術研究組合理事長 그리고 出捐 研究機關長 여러분!

본인은 지금까지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科學技術政策方向과 금년의 施策 등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政府 내 企業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20:80내외로 기업의 투자가 정부투자에 비하여 월등히 많고 技術革新의 主體가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인 그리고 과학기술인의 역할에 대하여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 기업인은 기술혁신을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삼아 「創意와競爭」을 바탕으로 「世界第一」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國家經濟를 지탱하고 이끌어 가는 原動力은 바로 기업이며 건전한 기업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관리자는 소속된 科學技術者로 하여금 創造的研究活動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과 함께 사랑과 애정으로 보살피 주시고 우리 과학 기술인은 기업이 추구하는 경영목표에 부합되는 연구결과를 창출하는데 魂과 生命을 바치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둘째, 국내 大企業間 그리고 大企業과 中

小企業間の 실질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주시고 産·學·研 協同의 先導의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際化와 開放化시대에는 技術競爭·製品競爭이 종전처럼 국내기업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진국의 막강한 기업과 경쟁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世界的인 大企業조차도 生存을 위해서 技術을 보유한 外國의 경쟁기업과 전략적 技術동맹을 통해서 배타적인 共同전선을 형성해 나가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기업간 협력의 중요성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大企業과 中小企業은 共存共生の 관계에 있습니다.

건전한 중소기업이 육성될 때 대기업도 발전할 수 있으므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技術과 정보·구매 등에 대해 폭 넓은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핵심주체인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技術혁신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中小企業은 政府出捐研究所가 무엇을 줄 것인가를 기다리지 말고 거리낌없이 출연연구소를 찾아가는 풍토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은 관련 각분야에서 未來指向의인 개발과제를 발굴하여 산업계나 연구계와 공동 숙의하며, 개발계획 수립에서부터 실행까지 共同協力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中小企業이 技術개발과정에서 애로가 있을 때에는 政府出捐研究所나 韓國産業技術振興協會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도 一流技術만 확보하면 급속히 성장하고, IBM같은 거대기업도 부단한 技術개발과 경영혁신에 실패하면 흔들리는 것이 오늘의 기업 환경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가로서 왕성한 開拓精神과 合理的인 思考를 갖고 技術指向의인 건실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우리나라 산업기술에 대한 核心體 役割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처는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민간의 창의를 최대한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의 技術개발 지원제도 안내와 기업의 隘路事項을 조사하여 건의하며 問題解決에 정부와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면 산업기술관련 부문에서 주도적인 위상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인 그리고 과학기술인 여러분!

국가경쟁력강화는 여러분들의 意志와 努力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으며, 지난해 부터 기업인 여러분들이 스스로 『國家競爭力強化民間委員會』를 구성하고 中小企業과 協力方案을 모색하면서 지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앞장서 왔습니다.

이와같은 열정이 일시적인 활동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지혜를 모으며 相互協力 하는 國民情緒로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인은 오늘 이 모임이 우리 企業과 科學技術界의 발전을 다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歷史的 使命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각자의 할 일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원 여러분과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다시한번 感謝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업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아울러 이시대의 국가경제를 主導的으로 發展시킨 役軍으로 기록되도록 우리 모두 協力합시다.

감사합니다.

1994.2.2

科學技術處長官
金 始 中